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봉쇄 및 식음료업체 움직임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3월 24일 밤 연설을 통해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21일) 인도 전역을 봉쇄 한다고 발표했다.

모디 총리의 연설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설 후 트위터에 "중앙 정부와 주 정부는 모든 필수 요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재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에 지방 당국은 "집 밖으로의 개인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내무부는 관련 지침을 발행하였으나 소매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의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필수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F&B 업체의 필수서비스

Coca-Cola, Nestle, Britannia Industries, Mondelez, PepsiCo 등의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은 정부에 F&B 제조 부분을 '필수 서비스'로 간주하여 봉쇄 기간에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사항은 3개의 무역협회인 인도 상공회의소 연맹(FICCI),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USISPE), 인도 음식 처리기 협회(The all India Foods Processors Association)에 의해 요청되었다.

FICCI는 지속적인 공급의 유지를 위해 "식음료 부분은 어떠한 작업 및 이동제한도 받지 않아야 하고, 더불어 식자재 회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생산 활동이 중단된다면 농민 및 기타 농산물 공급업체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0/03/30/India-s-COVID-19-lockdown-Coca-Cola-Nestle-and-more-MNCs-call-for-F-B-manufacturing-to-be-made-essential-service?utm_source=copyright&utm_medium=OnSite&utm_campaign=copyright

USISPE도 이에 동의하며 “식품 공급망은 고도로 통합되어있으므로 한 부분이 붕괴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그 영향은 농업 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Britannia Industries의 MD인 Varun Berry는 “분열된 공급망을 다시 복구하기엔 시간이 짧다”라고 경고하며, “만약 식품 공급망 중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향후 7~10일 내에 포장 식품의 재고가 소진될 수 있다”라고 Economic Times에 밝혔다.

또한 “식품 공급망에는 식재료 및 포장재 공급업체, 식품 제조 시설, 공장직원, 식자재 및 완제품 운송업체, 창고, 도매상, 유통업자, 판매원 등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허가가 즉시 발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Coca-Cola India는 웹사이트에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제조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지만, 소비자에 ‘필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Nestle India는 사무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온라인에 자체 성명을 발표했으며 Nestle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에 속해 있으며 현재 중단된 공장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당국과 논의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근경에 처한 F&B 스타트업 업체

대규모 F&B업체를 제외하고도 인도에는 식품 분야에 수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있으며 이번 봉쇄는 이들 업체의 운영과 생존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50여 명의 인도 F&B 사업가들이 ‘F&B Covid Emergency Group’을 구성했으며 이 협력단은 우선 ‘인도 내 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정부에 청원하였다.



“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50여 명의 사업가 및 다른 사업가들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니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협력단 멤버이자 Nut Butter Firm의 대표는 밝혔다.

이번 위기는 전자상거래를 확장하는 등의 자체 공급망을 보유한 인도의 젊은 브랜드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협력단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5개로 구분했다. 1) 중소기업을 위한 6개월간 무이자 대출, 2) GST지불 연기/면제, 3)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대형 은행의 인보이스 할인, 4) 중소기업과 고객 45일 결제 강요에 대한 지급조건 완화, 5) 사업장 폐쇄 기간 직원 급여의 75% 보장 등이 그것이다.

청원서에는 천명 이상이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Key Point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간 650만 톤을 수출하는 베트남은 3월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고 태국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달걀 수요가 세 배 가량 급증하자 4월 말까지 달걀 수출을 금지하는 등 국가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국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식품 제조기업들의 공장운영 중단, 시장 감축 등으로 인한 공급 애로가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연쇄적으로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여 국가별 상황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수출 전략 등의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services/retail/fb-companies-want-essential-pass-to-clear-checkposts-reach-you/articleshow/74800318.cms?from=mdr>